

전남

고흥 향토음식 '9味' 아시나요

고흥군 향토음식연구회(회장 송인숙)가 고흥 향토음식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대서면 장선마을 공원 일대에서 음식연구회의 활동 기반 구축과 회원 상호교류를 위해 현장 체험학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연 건강요리 체험 및 정보교환을 비롯해 회원 요리정보 발표, 상반기 활동평가, 회 활성화 방안 협의, 농촌 자연생태 보존 환경정화 활동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7년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음식연구회의 회원 수는 현재 30여 명으로 대부분 가정주부들이다.

음식연구회는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고흥의 아름 가지 대표 먹거리인 '9미(味)' 행사 등을 통해 고흥의 향토음식과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음식 개발·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향토음식 맥 위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흥군의 특산품인 유자를 이용해 유자한과, 유자해조당수, 전어유자회 등 13가지 요리를 발굴한다.

특히 군이 신활력사업으로 오는 11월 말에 폐내는 '고흥의 9미 요리백서' 발간에 자료제공을 하는 등 고흥의 음식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9미는 참장어(하모)·낙지·삼치·전어·서대·굴·매생이·유자향



참장어·낙지·유자향주 등 9가지 재료로

향토음식연구회, 음식 개발·홍보 나서

주·붕어(아나고) 등을 재료로 하는 요리이다. 이 가운데 8가지가 고흥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이고, 사계절 먹을 수 있는 '진석 화적'은 조선시대에 궁중에 진상 되기도 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유통 대신 생선·해조류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흥의 해산물 요리가 웰빙요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음식연구회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제 2기 신활력사업(2008~2010년) 일환으로 '9미 요리아카데미' 운영, '9미 요리백서' 발간 등 전통·향토음식의 제조기술 보존과 취나물 등 고흥의

특색있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9미 요리아카데미는 지난 4·5월 48명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전문가 과정으로 나눠 전통·개발요리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사진〉

송인숙(60) 음식연구회장은 "앞으로 고흥의 향토음식을 보존·계승하고, 해산물인 8미를 이용해 7~12가지 코스요리로 먹을 수 있도록 개발·보급하겠다"며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내 식당에서 실제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증기자 gjju@

함평에 뱀·악어 공원 생긴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내년 8월 개관

'나비의 고장' 함평군에 전국 최초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들어선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함평자연생태공원 인근 8만5천여㎡에 175억여원을 들여 생태 전시관과 공연장 등을 갖춘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생태공원에는 뱀 주제 전시관, 파충류 생태관, 악어 연못, 악어 공연장, 양서·파충류 등 다채로운 시설과 함께 체험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군은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내달 초 기공식에 들어가 2010년 8월께 개관할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완공되면 함평군이 함평자연생태공원, 엑스포공원 등과 연계한 복합 생태 테마 관광지로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함평군이 생태 관련 연구,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복합적 생태 관광자원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혁기자 hwang@



제작 기관	제작 내용	제작 일정
한국고을	한국고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009. 8. 25. ~ 2010. 8. 25.
한국고을	한국고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009. 8. 25. ~ 2010. 8. 25.
한국고을	한국고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009. 8. 25. ~ 2010. 8. 25.
한국고을	한국고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009. 8. 25. ~ 2010. 8. 25.



한국관광공사

기밀번호 1566-4499



광양 보건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광양시 보건소 직원들이 24일 진상면 회두마을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시는 하반기에도 총 35회에 걸

쳐 보건의료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1천1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제공〉

신안 천일염 브랜드 파워 높인다

'연합사업단' 출범... 2013년 시장 80% 석권 목표

천일염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신안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체,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 천일염 연합사업단'을 출범한다.

농협 목포·신안 시군지부(지부장 박종수)는 25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생산자와 농협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사업단 발대식과 사업설명회를 열고 대량 판매처 개발 등 분격적인 판촉활동에 들어간다.

농협은 신안 천일염 생산과 유통 현

황을 확장하고 생산농가에게는 실질적인 수취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수준높은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합사업단은 올해 안에 ▲자체 수매기준 제정과 이행 ▲브랜드의 통합과 새로운 포장재 개발 ▲홈페이지와 홍보용 CD제작 등 사업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산지 종합유통센터를 구축, 프리미엄급 소금

개발·유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안 천일염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정밀조사하고 협력업체를 거쳐 연합사업단 설치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사업단 근무직원을 보직 공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해왔다.

박종수 지부장은 "천일염은 신안군의 물적자원 중 가장 브랜드 파워가 높고, 소금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며 "농협의 마케팅 점유비를 현재의 32%를 2010년 50%, 2013년 80%까지 끌어올려 국내 천일염 시장을 완전 석권해 생산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전남 새끼돼지 폐사율 13% 감소

소모성 질환 예방 컨설팅 지원 등 효과

을 상반기 전남지역 새끼돼지 폐사율이 지난해보다 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양돈농가 40곳의 올 상반기 새끼돼지 폐사율은 12%, 육성돈은 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새끼돼지 폐사

율 25%보다 13%포인트, 성돈 폐사율 9%보다 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돼지 폐사율이 감소한 것은

올해 이를 농가에 총 3억2천만원의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지원했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돼지 소모성 질환에는 생식기 호흡

증 등이 있으며 다양한 병원체와 불량한 사육환경 및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새끼 돼지의 폐사율을 일으키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돼지 소모성 질환 예방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해 지원사업을 펼쳐 양돈농가 스스로 위생적인 사육관리와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정과장은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 감소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위생적인 사육관리, 스트레스 감소 등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의 자구 노력과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

완도 쌀 판촉 활동

郡 직원들 나섰다

10월까지 1만여포대 판매

완도군 직원들이 고향쌀 판매에 팔을 걷어붙였다.

완도군은 지난해 쌀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쌀 소비감소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재고량이 많아 2009년도 벼 매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월 말까지 70일 간 '고향 쌀 특별판매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2008년산 벼 재고량은 생산량의 50%인 1천140t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 산하 전 직원이 1인당 20kg들이 쌀 5포대 이상을 판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문을 받고 있으며 기관사회 단체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 이 기간에 쌀 1만 포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해역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완도쌀 '햇살로 가는 여정'은 완도군청 농산과와 특산 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완도군이숍(www.wandoguneshop.com)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쌀을 주문하면 즉시 짚어 햅쌀처럼 품질좋은 쌀을 택배로 보내는데 택배비는 군에서 지원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불우노인 무료 관절 수술

여천 NCC 연말까지 14명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 NCC(대표 조창호·윤태석)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로 관절수술을 해줘 호평을 받고 있다.

24일 여천 NCC에 따르면 지난 5월 여수 애양병원과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에서 관절질환을 앓는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 수술혜택을 주기로 하고 총 7명을 선정했다.

지난 11일 첫 환자를 시작으로 18일까지 4명이 수술을 받았다. 21일에도 1명이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2명은 오는 10월까지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여천NCC는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7명을 더 선정한 뒤 내년 이후에는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관절수술에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수애양병원 김인권 원장이 직접 기초 검진에서부터 수술까지 집도해 환자들의 신뢰도 아주 높다. 여천NCC가 이 운동에 나선 것은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노인복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던 중 노인 관절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